

‘천적 나라(天的, *the celestial kingdom*), 영적 나라(靈的, *the spiritual kingdom*)’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천적 나라(天的,  
*the celestial kingdom*),  
영적 나라(靈的,  
*the spiritual kingdom*)

<sup>33</sup>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  
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sup>34</sup>그들  
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  
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  
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  
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렘31:33, 34)

스베덴보리 저, ‘천국과 지옥’(Heaven and Its Wonders and Hell), 오  
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4장, ‘천  
국은 두 나라로 나누어져 있다 (H  
eaven Is Divided into Two Kingd  
oms)’를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빛이 우리를 환히  
비추셔서 이 아케이나가 우리에게  
밝히 이해되도록,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하도록 우리 영과  
육(靈肉)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  
합니다.

20 천국에는 무한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한 소사이어티(*society, communit  
y*), 어느 한 천사도 서로 정확히  
똑같지 않기 때문에, 천국은 일반  
적(*general*), 종류별(*specific*), 그리  
고 세부적(*particular*)으로 구분됩  
니다.

※ ‘소사이어티’(*society, communit  
y*)를 지금부터는 커뮤니티라 하겠습  
니다.

※ ‘어느 한 천사도 서로 정확히  
똑같지 않다’, 지상의 사람들이 서  
로 지문도 다르고, 성문(聲紋)도, 그  
리고 얼굴과 인성(人性), 심성(心性)  
등 퍼스낼리티(*personality*, 개성)가  
다 다르듯 천국 천사들 역시 그러하  
며, 그런 천사들로 이루어지는 천국  
커뮤니티들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  
다.

※ 우리는, 아니 저는 얼마 전까지  
만 해도 천국은 그냥 편평한 곳에  
다 함께 모여서 하하호호만 하며 사  
는 덴 줄 알았습니다. 죽어 천국 가  
는 걸 좋아만 했지 정작 천국이 어  
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  
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주님

램31:33-34, HH.20-28

‘천적 나라(天的, *the celestial kingdom*), 영적 나라(靈的, *the spiritual kingdom*)’에 대한 지식과 천국에 대한 지식은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수십 년을 다녔고, 그래서 이젠 목사일지라도 천국에 대해 이렇게 무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간 고백한 주님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해야만 할 것 같은 지경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나라(*kingdom*, 왕국)로, 종류별로는 세 천국,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무수히 많은 커뮤니티들로 구분됩니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다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나라(*kingdoms*)로 구분하는데,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 하기 때문입니다.

**21**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성(神性, *the Divine*)을 내적으로(內的, *interiorly*) 더 받는 천사들이 있고, 덜 받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전자를 천적(天的, *celestial, heavenly*) 천사들, 후자를 영적(靈的, *spiritual*) 천사들이라 합니다.

※ ‘내적으로’라는 말은 ‘더 깊게’(on a deeper level)라는 말입니다.

이런 차이로, 천국을 가리켜 두 나라로 나누어져 있다 하며, 하나를

천적 나라, 다른 쪽을 영적 나라라 합니다.

※ 다르게는, 주님의 신성을 구성하는 선과 진리 중, 선에 더 끌리는 천사들을 천적 천사, 진리에 더 끌리는 천사들을 영적 천사라 하며, 그래서 역시 두 천국, 천적 천국, 영적 천국으로 나뉩니다.

**22** 천적 나라를 구성하는 천사들은 주님의 신성을 더 내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 더 내적인 천사, 더 높은 천사라 합니다. 같은 이유로, 그들로 구성되는 천국을 더 내적 천국, 더 높은 천국이라 합니다.

※ 여기 ‘더 높은 천사, 더 높은 천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음 장인 5장 및 30장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미리 좀 말씀드리면, 267번 글 인용입니다.

천사들이 그런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내면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지혜는 다른 모든 완벽성과 마찬가지로 내적으로 갈수록 증가하므로, 내면이 열리는 정도만큼 지혜가 늘어나는 것이다. 모든 천사에게는 생명의 세 단계가 있

‘천적 나라(天的, *the celestial kingdom*), 영적 나라(靈的, *the spiritual kingdom*)’고, 이것은 세 천국에 상응한다. 내면의 첫 단계가 열린 이들은 일층천, 즉 가장 외적인 천국에 있다. 내면의 둘째 단계가 열린 이들은 이층천인 중간 천국에, 내면의 셋째 단계가 열린 이들은 삼층천인 가장 내적인 천국에 있다. 천국 천사들의 지혜는 이들 단계에 적합한 것이다. 따라서 가장 내적 천국 천사들의 지혜는 중간 천국 천사들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이 초월하고, 중간 천국 천사들의 지혜는 가장 외적 천국 천사들의 지혜를 그렇게 초월한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더 높은 단계에 속한 것은 세부적이고, 더 낮은 단계에 속한 것은 일반적이며, 일반적인 것은 세부적인 것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것은 일반적인 것을 수천수만 배 능가한다. 그러므로 더 높은 천국 천사들의 지혜도 낮은 천국 천사들의 지혜에 비하면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 같은 이치로, 낮은 천국 천사들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에 비하면 그런 차이가 난다. 사람은 육체적인 상태에 있고, 또한 육체의 감각에 속해 있으며, 육체의 감각은 낮은 단계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면 감각적인 사람들, 즉 감각의 대상이 되는 것에 그들 사고의 범위를 국한한 사람들의 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말하자면, 그들은 지혜가 하나도 없고, 단지 지식만 있다. 그러나 감각적인 것을 넘어 그들의 사고를 고양시킨 사람들은, 특히 그 내면이 천국의 빛을 받는 단계로까지 열린 사람들은 이와 다르다. (HH. 267)

그들을 일컬어 더 높다, 더 낮다 하는 이유는, 이런 표현들을 써서 내적인 것, 외적인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23 천적 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있는 사랑을 천적 사랑, 영적 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있는 사랑을 영적 사랑이라 합니다. 천적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 (*love to the Lord*)이고, 영적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 (*love toward the neighbor*)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그에게는 선이기 때문에 모든 선은 사랑에 속하고, 그래서 위 두 나라의 경우도 한 나라의 선은 천적, 다른 나라의 선은 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주님 사랑의 선이 이웃 사랑의 선과 구별되듯 그렇게 서로 확실히 구별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의 선은 내적 선이요, 그

‘천적 나라(天的, *the celestial kingdom*), 영적 나라(靈的, *the spiritual kingdom*)’ 사랑은 내적 사랑이기 때문에, 천적 천사들은 내적 천사들이며, 천적 천사들을 가리켜 더 높은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 지난주에 다룬 ‘주님 사랑, 이웃 사랑’ 관련, 15번 글입니다.

천국에는 두 종류의 구별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가장 내적 천국, 곧 삼층천은 주님 사랑의 천국, 이층천, 곧 중간 천국은 이웃 사랑의 천국입니다. 이 두 사랑은 둘 다 주님에게서 나와 둘 다 천국을 이룹니다. 이 두 사랑이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는 천국에서는 밝은 빛 가운데 보이는데, 이 세상에서는 흐릿하기만 합니다. 천국에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오는 선을 사랑하는 것이며, 선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선을 의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역시 이웃을 개인적 친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며,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를 의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들 두 사랑이 선과 진리가 구별되듯 구

별되며, 선과 진리가 결합하듯 서로 결합한다는 사실을 이것으로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먼저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선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웃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않고서는 이해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HH.15)

※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역시 이웃을 개인적 친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며,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를 의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서로 별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 사랑뿐입니다. 다만 주님 사랑의 속모습이 전자라면, 주님 사랑의 겉모습이 후자일 뿐입니다. 이웃 사랑, 즉 진리를 사랑함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즉 말씀에 대한 태도는 말씀하신 분, 곧 주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걸 놓치면, 아차 하는 순간, 이웃 사랑이 자기 의(義)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진리인 말씀을 사랑하여 실천하고 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 이웃 사랑의 사람이야’ 하고들 계시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적 나라(天的, *the celestial kingdom*), 영적 나라(靈的, *the spiritual kingdom*)’

**24** 천적 나라를 또한 주님의 성직(聖職, *priestly*)의 나라라 하며, 말씀에서는 ‘그의 처소’라 합니다. 한편, 영적 나라는 주님의 왕권(王權, *royal*)의 나라라 하며, 말씀에서는 ‘그의 보좌’라 합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의 주님을 신성의 천적 측면에서 ‘예수’라, 영적 측면에서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 주님의 호칭 관련, 정리입니다.

주님은 삼위(三位)가 한 분 주님으로 계신 분이시며,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자신을 ‘주님’으로 호칭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속 사람, 곧 영에 해당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성(*the Divine*)으로, 주님의 겉 사람, 곧 육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 인성(*the Divine Human*)으로, 그리고 활동에 해당하는 ‘성령’(*the Holy Spirit, the Divine Proceeding*)께서 주님으로부터 발출(發出, *proceeding*)되는 신적 진리(*the Divine Truth*)로, 이렇게 세 요소가 한 분 주님으로,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신성은 선과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신성에 관한 호칭인 ‘여호와 하나님’에서 ‘여호와’는 선에 관한 호칭, ‘하나님’은 진리에 관한 호칭이시며, 주님의 신적 인성에 관한 호칭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는 선에 관한 호칭, ‘그리스도’는 진리에 관한 호칭이십니다.

이 설명에서 ‘선에 관한 호칭’, ‘진리에 관한 호칭’을 각각 ‘천적 측면에 관한 호칭’, ‘영적 측면에 관한 호칭’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25** 주님의 천적 나라 천사들은 주님의 신성을 보다 더 내적으로 받기 때문에, 주님의 영적 나라 천사들보다 지혜와 영광에 있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들은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며, 그 결과 주님과 더 가깝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신적 진리를 그들의 생명(또는 생활, 삶, *life*) 안으로 즉시 받아들이고, 또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 천사들처럼 먼저 기억과 사고 안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 확실히 우리도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안인데도 누구는 뜨겁게 가

렘31:33-34, HH.20-28

‘천적 나라(天的, *the celestial kingdom*), 영적 나라(靈的, *the spiritual kingdom*)’ 습이 먼저 동(動)하는가 하면, 누구는 차갑게 머리가 먼저 동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태생적 차이는 창조주이신 주님으로부터, 곧 주님의 신성이 선과 진리로 되어 있는데서부터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천적 천사들은 신적 진리가 자기들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 지각, 직관하며, 그것을 마치 자기들 안에 있는 것처럼 봅니다. 그들은 신적 진리를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 추론하지도 않습니다. 아래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sup>33</sup>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sup>34</sup>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렘31:33, 34)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사54:13)

라 하였는데, 여기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것’은 주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것인데, 요한복음 6장 45절, 46절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sup>45</sup>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sup>46</sup>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6:45-46)

※ 이런 사실을 보면, 혹시 제가 태생적으로 영적이어도 저는 천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나중에 천적 천사가 되고픈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천국에 대해 조금씩 알아갈수록 서서히 드는 생각은 ‘아, 삼층천 천사가 되어 삼층천 천국에 들어가는 건 보통으로 살아서는 결코, 어렵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읽었던 성인전에 나오는 그런 분들, 가령 성 프란치스코 같은 분들이라야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 말이지요. 방금 ‘보통으로 살아서는’이라 하였는데, 이 말은 ‘그냥 보통으로 평범하게 적당히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서는’이라는 말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주님 말씀하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천적 나라(天的, *the celestial kingdom*), 영적 나라(靈的, *the spiritual kingdom*)’ 하라’ (신6:5) 이 말씀을 평생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앞으로라도 프란치스코처럼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6 이들 천적 천사들이 다른 천사들보다 지혜와 영광이 더 뛰어난 이유는, 이들이 신적 진리를 자신들의 생명 안으로 즉시 받아들이며, 그걸 지속하기 때문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신적 진리를 들으면 바로 그것을 의도하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였다가 나중에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들은 것이 진리임을 주님의 인플럭스(*influx*, 入流)로 즉시 알아차립니다. 주님은 사람의 의지 안으로는 직접 들어오시는 반면, 생각 안으로는 의지를 거쳐 간접적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혹은 같은 말이지만, 주님은 선 안으로는 직접 들어오시지만, 진리 안으로는 선을 거쳐 간접적으로 들어오십니다. 의지와 그로 말미암은 행동에 속한 것을 선이라 하는 반면, 기억과 그로 말미암은 생각에 속한 것을 진리라 합니다. 게다가 모든 진리는 의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선이 되며 사랑 안에 심기

지만, 그저 기억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런 진리는 선이 되지도 못하고 선으로 하여금 살아있게도 못하며, 사람에게 어울리는 진리도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의지(*will*, 의도, *intent*)와 그 의지에서 나오는 이해(*understanding*, *cognitive ability*, 인식 능력)로 사람인 것이지, 의지와 분리된 이해만으로는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과거 제가 미처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던 장면들,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감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404호인데, 저희 맞은편 403호 및 위아래층들과 소원하게 지내는 모습이 말입니다. 저희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7 천적 천사들과 영적 천사들 간의 이런 차이 때문에, 그들은 함께 있지도, 서로 아무 사귄도 없습니다. 그들은 천적-영적이라 하는, 중간 천사 커뮤니티들에 의해서만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이들을 통해 천적 나라가 영적

‘천적 나라(天的, *the celestial kingdom*), 영적 나라(靈的, *the spiritual kingdom*)’ 나라 안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천국은 비록 두 나라로 나뉘어 있어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이런 중간 천사들을 있게 하셔서 둘 사이 커뮤니케이션과 결합을 제공하십니다.

※ 주님의 이런 배려와 사랑을 우리도 배워 적용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가슴 성도, 머리 성도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양인데 누구는 염소인 걸 볼 수 있지요. 보통은 이렇게 백과 흑으로만 나뉘어 있어 불화와 반목이 끊이지 않습니다. 천국도 저렇게 마치 물과 기름처럼 천적 천국과 천적 천사들, 영적 천국과 영적 천사들이 나뉘어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이들 두 나라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중간 천사들을 있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그리고 어느 공동체 안에도 이런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세워야 하겠습니까.

**28** 이들 두 나라의 천사들에 관해서는 앞으로 여기서 생략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다룰 예정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겉으로만 보면, 즉 우리 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 천적 천국, 천적 천사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내적으로 깊게 받아 더 지혜롭고, 주님의 임재를 더 직접적으로 누리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네, 분명히 천국은 이런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아무 불만이 없고 오히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들 ‘자기 역량에 넘치도록 모든 걸 누리기’ 때문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차이,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어디까지 열렸나 때문이지요. 자신의 내면의 문제에 집중한 만큼만 천국은 누릴 수 있는데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천국에 고정하시면 이 모든 내용이 참임을, 참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아시게 됩니다. 빛을 구하시며 이 원고를 여러 번 읽어 부디 내면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22-08-28(D1)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